



市政新聞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19면)

채승우 의원,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간담회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은 24일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추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과 향후 지역구 의원 및 주민이 함께 추진할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는 송파구의회 조용근 부의장도 참석해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다.

채승우 의원은 “문정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하나

로 모여야 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지역구 의원과 주민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두데미역 신설을 위해 의원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양측은 주민 참여와 대외활동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추진위원회 임원진은 문정동 일대에 주거지역이 밀집했음에도 철도교통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례과천



채승우 의원(왼쪽 네 번째)이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추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선 추진을 계기로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의원은 오는 9월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

데미역 신설안 반영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준성 기자

/ roff1116@naver.com